

現代文藝批評研究序說

—포멀리즘과 구조주의를 중심으로—

전 주 태*

0. 들어가는 말

러시아 포멀리즘이 오늘의 구조주의의 원천임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포멀리즘이 러시아 상징주의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으로들 여기고 있으나 실은 그 계승인 것이다.¹⁾

심볼리즘은 모더니즘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상징주의가 러시아에 소개될 때, 러시아의 평론가들은 러시아 문학의 공리주의를 맹렬히 비판하면서 예술을 위한 예술을 주장하였고 커뮤니케이션적 思考法과 그 사상적 의의를 밝히려는 비평이 움트면서 기호론적 문학 연구의 방법론이 점차 왕성히 일어났던 것이다.

러시아는 텍스트 了解의 여러 원리를 발견하여 이를 체계화하는데 있어 매우 선구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혁명 이후 러시아 문화계에서는 한때 '나로드니제(人民主義運動)'가 성행했었지만 상징주의나 아크메이즘 같은 아방가르 예술 사상이 보다 진지하게 받아들

* 전주대학 교수

1) cf. Литературоведение, Домжно, стр 90-100, Волрос, 1976.

여졌었다.

이제 소련에서는 계급투쟁적 문학론이 퇴조해가면서 그들이 창작 방법으로 법제화까지 했던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란 것까지도 그들 스스로 입에 붙이기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²⁾ 그들은 오히려 서구보다 앞장 서서 구조주의나 포멀리즘(formalism)등 문학의 기호론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그 정당성을 재인식, 명실 공히 형식주의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소련에서마저 퇴색된 나로드니제적 기운이 새삼스레 고개를 쳐들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우리 문학의 건전한 발전의 提高를 위해 현대·문예비평의 향방을 헤아려 보고자 한다.

1. 문예비평의 흐름

문예비평이 자립적인 활동을 하기에 이른 것은 19세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비평이 다른 장르 못지않게 매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기에 이르고 있다.

19세기의 대표적인 비평가로 썽프·뵈브를 들 수 있는데, 그는 대체로 창작과 비평이 대립된다고 생각하여 왔다. 인종, 환경, 시대로서 모든 것을 설명한 H·메느는 자기 나름대로 실증주의적인 관념을 낳았고 이른바(講壇批評)의 제 1인자였던 브룬테에르(Brunetière)는 “양식(genre)의 진화”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과학적인 객관비평의 길을 터놓았다.

한편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 초엽에 걸쳐 이른바 인상주의의 비평가 F·르메뜨르(Lemaitre)가 나타났다. 그는 자기의 인상을 풍운하게 하는 것이 비평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공감의 방법으로서 작품의 창작 행위의 분석을 요지로 하는 창조비평을 내세운 P·발레리(Valery), A·띠보데(Thibaudet) 등이 직관을 존중하는 이론을 폈다.

20세기에 접어들어 전반에서 후반에 걸쳐 정신분석학의 발달에 부응하여, 이를 문학에 적용하는 작가들을 천착하는 정신분석학적 비평이 활발해 졌고, 1960년대에는 미국의 「캐년·레뷰」지에 모인 일군의 비평가들이 이른바 뉴·크리티시즘을 들고 나왔다. 말의 작용을 분석하고 작품의 내부 구조를 밝히는

2) cf. 元亨甲：포멀리즘과 우리의 批評文學，隨筆文學，1980. 9.

것이 비평의 가장 큰 임무라고 하는 주장은 이 무렵 미국 비평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에 이른다.

이 일파에 속하는 사람으로서는 J.C. 란슨(Ranson), 블랙머(Blackmar), W·부룩스(Brooks), Y·윈터즈(Winters) 『비평(L'arc, 26호)』에서 언어비평이란 언어의 내재적 비평으로서 이 비평은 작가의 전기적 측면이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생활이라는 측면을 등한시하고 직접 작품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는 내면적 요구만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의 “인간과 事物”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일체의 합법적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발견, 이를 명료하게 얘기해야 한다.”라는 소박했던 구조 등을 들 수 있다.

2. 구조주의 문학의 등장

현대 프랑스에서는 소쉬르(F·de Saussure)의 『언어학』의 이론을 원용하여 구조주의적 비평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비평이란 한마디로 언어 비평이라고 보는 것이다. 『화살(L'arc·』지에서는 1966년 이래로 몇차례에 걸쳐 구조주의 비평을 특집으로 낸 바 있다. 파리 대학의 즈네뜨(G rard Gen tte, 1930~)는 「구조주의와 구조주의 이론은 이제 온갖 형태로서 문학 분야에도 침투하고 있다. 언어 비평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간 M·블랑쇼(Blanchot)나 롤랑·바르트(Roland Barthes)는 그 대표적인 기수라고 하겠다.

하지만 한때 크게 범석했던 이 구조주의로서 과연 작자와 사회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른바 역사주의와 실존주의의 “안티·테제”로서 비롯하게 된 이 구조주의가 그 성질상 언어학적인 과학적인 원리에만 의존하게 되는데, 과연 그러한 기호론적 아플로우치(semiotics approach)로서 과학 아닌 문학의 문제가 응글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조심스런 회의도 일고 있다.

3. 구조의 개념

오늘날 구조주의에 있어서의 구조의 개념은 현대 수학에 힘입은 바가 자못 컸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J. 삐아제(Piaget)는 특히 이 점에 유의하며 그 나름

의 기능주의를 구조주의와 연맥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삐아제의 사고방식은 자연 그 형성 과정에 중점을 두게 되었는데 인류학자인 레비·스트로스(Lévi-Strauss), 철학자 M. 프코(Foucault) 등의 업적이 나온 이후 여러 영역에서 구조주의는 일종의 知的 유행으로 번져나갔는데 여기서 인정되는 共時的, 靜態的 경향은 구조주의와 대립되는 면도 없지 않았다.

이러한 공시적 경향이란 쏘쉬르 학파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이 학파의 방법론은 언어학을 19세기의 역사주의로부터 해방시키고 언어를 고유한 체계로서 파악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정태적 경향에 대한 반동으로서 N. 촘스키(Chomsky)가 내세운 變換的 구조주의가 각광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촘스키는 개인에 있어서의 언어의 형성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固定的 圖式”의 유전을 想定한다. 이에 대해 삐아제는 언어의 형성에 있어서의 상호 작용과 균형화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촘스키의 구조주의를 구성주의의 방향으로 柔軟化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R. 바르트는 언어학에 있어서의 대립적인 두개의 항목, 곧 단수와 복수, 과거와 현재의 사이의 제 3의항, 즉 중립적인 항인 零度의 문장에 관해서 언급했고, 로브·그리에는 인간의 의식을 외계의 사물로부터 그려보려고 시도함으로써 인간 의식의 모호함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객관화라는 사물 묘사 편중은 극도의 주관적인 입장이며 몰주관적인 소설 수법인 주관적 의도로서 그리려고 하는 누보 로망이 등장했다.

언어를 통해서 이와 같은 면을 극한까지 밀고 나간 것이 모리스 블랑쇼의 비평이다. 그런데 여러 이론들이 구조의 개념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성격을 운위하게 될 때에는 적어도 모든 구조주의에 공통되는 두 개의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 하나는 理想 즉, 내재적인 명확성(intelligibilité)이라고 하는 희망인데 이는 구조 자체로서 충분하며 이를 파악하는데 있어 그 성질과는 무관한 여러 종류의 요소에 호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假定에 입각한 희망인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현실화인데 이는 인간이 실제로 어떤 종류의 구조에 이를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현실화인 것이다.

4. 삶과 존재의 ‘텍스트’

우리들 인간의 의식이란 陝義로든, 廣義로든 간에 바로 언어의식인 것이며

이 경우 의식과 언어 사이에는 전자가 후자를 유지함과 함께 그 역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하는 상호 관계가 존재한다. 인간적 활동이 고정된 “텍스트(texte)”란 역사에 있어서의 문화적인 축적을 노린 不可視한 언어와 의식을 고정하고 이에 의해 양자의 수준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간적 의미 부여가 가능한 “텍스트”라는 것도 바로 역사의 축적을 꾀한 것으로 다만 우리들이 오늘날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일상성이 이를 보이지 않게 가려 버렸을 따름이다.

역사적 축적의 현재점이라고 하기 보다는 환경에 대한 적응의 결과인 일상성은 “自動機制”, “惰性態”로서 이따금 우리들의 인간성을 해치는 무엇인가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들이 새삼스럽게 인간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인가? 라고 반문했을 때 그것은 이 “日常性”을 의문에 붙이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리라. 왜냐 하면 만일 일상성이 아무런 의문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상성 그 자체가 이미 이들 간에 해답이 되기 때문이다.

“세만틱(Semantic)한 형성물”인 인간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삶과 존재란 무엇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할 때 그것은 인간의 현재의 의식적 수준을 지탱해주는 “텍스트”를 통해서 역사에 있어서의 의미에 축적을 풀어나가고 그 가운데에서 인간에 대한 不變項의 초시간적인 범열(範列: paradigmatics)을 스스로를 위해 만들어낸다. 즉 실존적 선택이란 이러한 범열에 대한 스스로의 위치를 다지는 일에 있어 “인간”, “삶”, “존재” 그 자체란 매우 포착하기 힘든 것이므로 인간에 대한, 삶과 존재에 대한 텍스트를 통해서 이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5. 러시아 포멀리즘

전술한 바와 같이 심볼리즘은 모더니즘의 출발점을 이루기도 한다. 오늘날의 소련 기호론은 스탈린 사후 서구로부터 도입된 구조주의에 힘입은 바 큰, 이 구조주의라는 것도 러시아가 원산지이므로 그런 의미에서 외래 사상의 이식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회귀라고도 말할 수 있다. 오늘날 소련 기호론은 포멀리즘 이래의 언어학, 기호론의 발달과 정보 이론 등의 여러 원리를 다져서 포멀리즘을 복원시켰는데, 이제는 텍스트, 민속등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그 대상을

넓혀 인간적 활동의 총체로서의 문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호론자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문화를 내부로부터 뿐만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에서도 조망할 수 있는 시각을 방법론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인간 존재를 확인하고자 한다.

텍스트란 텍스트로부터 생겨나고 또한 텍스트를 낳는다. 여기에 언어, 의식, 텍스트에 있어서의 역사적 축적의 구체적 사실을 찾아볼 수 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성서, 셰익스피어, 윌러, H·발작에 의해서 태어났고, A·자이드를 낳았다. 어느 한 텍스트란 그러한 여러 텍스트의 생성, 전개, 접촉, 간섭, 버부림의 과정 즉 일반적인 텍스트 과정 속에 위치지워짐으로써 비로소 이해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현재 그 가장 유력한 방법이 곧 구조주의 기호론이라고 본다.

6. 구조주의의 방법론적 기초

구조주의의 방법론적 기초는 변증법이다. 구조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의 하나는 여러 특징의 기계적 열거라고 하는 원리에 의한 분석을 방지하는 일이다. 예술 작품이란 여러 특징의 총계가 아니라 기능하는 체계이며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특징”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관련된 모형을 조립해야 한다. 주어진 체계적 타입에 의하여 조립된 여러 요소의 유기적 통일로서 각 구조란 매우 복잡한 구조적 통일체의 요소에 지나지 않으며 구조 자체의 제 요소란 각각 독립된 구조로서 검토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현대 과학에 있어 고유한 레벨별 분석은 구조주의에 있어서도 본질적으로 고유한 것이다.

그 다음 단계로는 체계의 기능 양태에 대한 연구이다. 그 다요인성 때문에 공식적인 記述이 일반적으로 복잡한 구조(문학은 그 한가지이다)를 다룰 때 그에 선행하는 여러 상태의 지식이 모델화를 성공시키기 위한 불가결의 조건이 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구조주의란 역사주의와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개의 문학적 구조(작품)을 “문화” 또는 “역사”라고 하는 한결 복잡한 통일체의 요소로서 의미짓는 일의 필요성은 꼭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 “역사”에 대신하는 수학이나 언어학이 아니라 역사의 손을 맞잡은 수학·언어학은 물론 예술 諸學이야말로 구조적 연구의 길이며 문학 연구자의 벗인 것이다.

일부 문예비평가들이 구조주의가 마치 전통적 문학연구를 부정하는 것처럼 공격하고 있지만 구조주의란 결코 선행하는 “전통적” 학문에 대해서 적의같은 것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구조주의는 학문에 있어서의 독점적 지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배타성의 지향”이라고 하는 울가미를 구조주의에 덮어 씌운 것은 다름 아닌 구조주의의 비판자였다.

무릇 구조적 연구는 오늘의 문학연구가 자칫 빠지기 쉬운 “분열성”을 제거하려고 하며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문학속에 사회적 의식의 특별한 형태로서의 예술을 보고, 이를 사회학설사 속에 해소시키는 일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또한 구조주의는 작품의 이데아를 유의적 요소의 통일로서 해명하는 것을 큰 과제로 삼는다.

여기서 예술적 구조의 각 요소에 관해서는 그 의미란 과연 무엇이며, 이는 또한 어떠한 의미의 무게를 감당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작품 구성에 대한 예술적 이데아의 관계란 세포의 생물학적 구조에 대한 생명의 관계를 상기시킨다. 생물학에서는 생명의 담당자인 물질의 현실적 조직 바깥에서 생명을 연구하려는 生氣論者란 이제는 없겠지만 문학에서는 아직도 있다. 하지만 살아 있는 조직의 물질적인 “목록”의 용어 나열을 통해서도 생명의 신비를 명백히 밝힐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문학의 참다운 의미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텍스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의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텍스트가 안고 있는 비밀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해명하고 그 감추어진 뜻을 汲得하는데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문학 작품을 실속이 있는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어느 평면과 연관되어 작동하는 모습을 입체적인 구조 밑에서 그 체계를 살피면서 시간과 공간의 구성 및 작품을 이루고 있는 요소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전체를 파악하는 방법에 의해서 문학의 참스런 의미가 터득되어야만 하겠다. 그러니까 가지의 세계, 의식의 세계 너머에서 질서와 구조를 부여하고 있는 미지와 무의식의 세계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문학 연구란 작품 속에 감추어진 참뜻을 유출해냄으로써 해답이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비평가들도 심중히 받아야 할 것 같다. 포멀리즘이 대두된 이후, 문학이란 과연 어떻게 발생한 것일까, 인간에게 있어서 언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등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다.

아름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의의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예술이 고유의 표현 수단[媒體]과 표현 형식을 지니면서 삶, 인간 세계를 이해하려 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표현 수단과 표현 형식의 相違는 회화, 음악, 문학 등 술한 예술 장르에 반영된다.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는 언어 수단과 언어 형식을 갖는 예술 장르이다. 이들 언어 수단과 언어 형식은 일상 생활에 있어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며 창조되고 있다는 점을 명기해야겠다.

7. 詩語의 구조주의적 천착

갓가지 “의미의 한정된 영역”과 중심적인 현실의 과제에 대해서 매우 시사적인 착상은 유우리·투우이니유노프에 의해 제출되었다. 그는 「문학적 진보」라고 하는 논문 가운데에서 하나의 체계를 낱말의 구성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 및 벽찬 긴장을 그 특징으로 하는 복합적인 전체로서 포착했다. 이러한 고찰은 프라하 구조주의를 전개한 얀·무카초프스키Jan Mukárpský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는 다시 갈페린Ilya Romanovich Galperin의 정보 이론으로 이어진다.

문학 언어, 시적 언어란 일상 언어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갈페린의 이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보를 새로운 것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데 이는 문학 정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새로움→의외로움에 대한 충격→발전→삶에의 각성이라고 하는 예술 정보 이론의 한 원리가 되고 있다. 실은 이러한 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詩學』 시대부터 존재(놀라움의 개념 참조)했던 것이긴 하나 이를 좀 더 승화시킨 것이 러시아의 포멀리스트이고 이를 더욱 체계화한 것이 갈페린이다.

러시아 포멀리즘은 예술적 지각의 메카니즘을 명확히 하는 작업으로부터 출발했다. 삶이란 환경에의 적응에 의한 “생체의 자기 보존”의 과정이라고 그들은 본 것이다.

일상 생활이 습관화되고 자동기계에 맡려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언어라는 것도 자동화된 것이라고 그는 보았다. 단순 일상 생활의 필요성에 도움이 될 뿐 “언어의 세계”, 현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버리면 도구로서의 역할을 다 셈이며 그 후로는 무용물이 된다. 그러므로 일상적 언어, 특히 일상적

대화에서는 언어란 이따금 조잡하고 생략이나 중단이 뒤따르기도 하며, 전달 내용은 기억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언어로 표현되었던가에 대해서 자주 잊기도 한다. 그러니까 전달 수단은 최소한의 被知覺性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사물이 명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표명된 언어는 이를테면 “렛텔”과도 같은 것으로 사물 그 자체는 뚜렷이 들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일상 언어는 전달 기능이 우선하여 전달(표현)내용>전달(표현)수단, 이라고 하는 도식을 만들 수 있다. 러시아 포멀리스트들은 현실에 대한 정보인 전달 내용을 “전일적”라고 명명하고 표현 수단에 속하는 언어의 의의를 “명시적 의의”라고 불렀는데 (이는 후설의 용어임), 위의 도식에 따르면 의당 일상 언어에서는 全一的 의미(名示的 의의, 시적 언어에서는 전일적 의미(명시적 의의)가 된다. 일상 용어에서는 전일적 의미(언어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말뜻, 곧 명시적 의의가 투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지만 시적 언어에서는 後者が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전자 곧 전일적 의미는 이따금 “ambiguous” 해진다.

프라하 학파의 멤버이며, 현재 “예일·포멀리스트”라고도 부르는 르네·웰렉(René Wellek)도 이와 같은 정보 이론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³⁾

옛부터 문학사에 있어서는 형식과 내용의 우위성을 위효하고 술한 논의가 있었으나 러시아 포멀리즘은 초기에 보였던 용감한 형식 예찬론에도 불구하고 실은 이러한 대립 개념의 지양을 위해서도 적잖은 힘을 기울였던 것이다.

8. 음과 의미의 動的 관계

문학적 언어, 시적 언어에 있어서의 음과 의미의 동태적 관계에 대한 포멀리스트들의 考案은 시학, 언어학 그리고 의미론 등에 빛나는 공헌을 했다. 그러한 공헌은 언어와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라고 하는 매우 미묘한 문제에 視角을 맞추어 그 실상을 밝히고 있다. 언어와 대상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그리이스 시대로부터 논의되었는데(특히 플라톤의 「命名論」), 중세에 있어서는 그것이 唯名論과 實念論의 대립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유명론은 영국이나 유럽 대륙의 경험철학자들에 의해 계승되었다.

3) A. Warren & R. Wellek: Theory of Literature, pp.128~129. p.232, Harcourt, 1949.

20세기에 이르러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의 구명에 골몰하게 되었는데, 문학 방면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아마도 프랑스의 상징파일 것이다. 말라르메(Mallarme)는 「시의 위기」에서 시와 언어의 관계에 대해서 논급하면서 일상 언어와 시적 언어를 구별한 바 있다. 말라르메에 의하면 前者는 어떠한 종류의 일상어든 간에 실용적인 “보도(reportage)”를 목적으로 하며, 현실의 斷片을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전달하는데 불과한데 비해 시적 언어란 그 환치(transposition)”와 “구조(structure)”화에 의해 설키란 언어에 음악을 회복시키고 그에 따라 인간 정신을 정화시킨다는 것이다.

순화된 형식의 결과인 음악과 순화된 관념과는 시에 있어서 음과 의미를 뜻하기도 한다. 일상적 언어에 있어서는 음이란 언어의 세계, 현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에 불과한데 대해 시적 언어에 있어서는 음은 자율적 가치를 획득한다.

순화된 형식의 결과인 음악과 순화된 관념과는 시에 있어서 음과 의미를 뜻하기도 한다. 일상적 언어에 있어서는 음이란 언어의 세계, 현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에 불과한데 대해 시적 언어에 있어서는 음은 자율적 가치를 획득한다.

러시아 포멀리즘의 시학은 본시 심볼리즘 美學에 대한 반발로부터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자에 대한 후자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러한 포멀리즘의 시학은 앞서 말한 갈페린이 1974년에 내놓은 「시적 언어학(언어 諸單位の 情報性研究)」의 업적 이후 한층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이 저서는 시 작품을 재료로 해서 언어학적 정보 이론의 여러 개념을 外挿시키고 있다. 또한 그의 이론을 문학 작품이란 모든 다른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이며 단절되지 않는 하나의 살아 있는 존재라고 본 헨리·제임스의 이론과 그 軌를 같이하고 있다.⁴⁾

구조주의란 전술한 바와 같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통하여서 일반적인 법칙을 찾자는 것이 아니라,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그 심층의 구조를 밝혀냄으로써 어떤 보편적인 법칙을 찾아서 그 법칙을 근거 삼아 다양한 현상을 포착하자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학 작품이란 유기적 질서를 가진 생명체라고

4) H. James: The Art of Fiction. p.61, Double day. 1971.

전제하고 그 구조를 살피는 자세를 우리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될 줄로 믿는다.

9. 언어와 그 구조로서의 작품

포멀리즘은 체언할 나위도 없이 문학을 과학적으로 천착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문학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려는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 포멀리스트들은 조직된 구조대 조직 안된 자료라는 2분법을 마련하여 형식과 내용이라는 종래의 구분을 대신했다.⁵⁾ 이리하여 포멀리스트들은 문학을 특수한 계열(série spécifique)로 여기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독자적인 과학으로 변형되기에 이른다.⁶⁾

현대 예술 특히 문학 연구는 작품의 분석(Kunst wissenschaft)에 의해 제기된 구체적인 문제들에 집중되고 있다.⁷⁾

우리가 흔히 시의 본질적인 구조를 건축이나 회화의 구조와 관련시켜 생각하거나 현대 예술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진밀히 詩에 접근하도록 詩 구조를 발레나 음악 구성의 구조와 동시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오늘날 평론가들이 시를 정치, 과학 또는 철학적 진실에 의해 분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알프렛 카진(Alfred Kazin)은 새로운 포멀리스트들이 흑백논리 중에서 후자를 택했다고 비난하고 있다.⁸⁾

포멀리스트들은 문학 작품이란 언어를 재료로 한 無定形의 언어적 구조로부터의 작업을 통해 창조된 물건(Ding)으로 이룩되는 것으로 여기고, 그에 따라 작품의 문학성(Literarhaftigkeit)을 천착, 단조로운 언어적 구조로부터 어떻게 하여 언어적 예술 작품으로 提高시키느냐의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⁹⁾

재료와 구조를 근간으로 한 이와 같은 문학 연구방법에 있어 포멀리스트들은

5) 윤지관 역권: 現代文學理論의 潮流, p.31, 학민사, 1983.

6) 김치수역: 러시아 형식주의, p.12. 梨大出版部, 1983.

7) cf. 鄭昌燮: 러시아 형식주의, p.5. 關大論文集 13輯, 1985.

8) 이경수 역: 살 빛어진 향아리, p.233, 弘盛社, 1983.

9) Eichenbaum의 「Gogol의 〈외투〉는 어떻게 이루어졌나(1919)와 V. Šklovskij의 「〈동키호테〉는 어떻게 되었는가(1912) 등은 이 같은 연구의 대표적인 보기다.

재료로서의 실용언어(praktische Sprache)와 시적언어(dichterische Sprache)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실용언어가 시적언어로 변화되어 나타나는 작품의 구조에 대한 연구방법을 포멀리스트들은 문학 연구의 주된 테마로 삼기에 이른다.

포멀리스트들은 시에 있어서의 韻律도 추상적(bildische) 개념으로 파악하지 않고, 운문의 언어학적 구조와 관련을 맺게 되었고, 그에 따라 韻律學은 韻律을 읽고 쓰는데에 중요한 배경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이른다.¹⁰⁾

10. 맺 는 말

이상 포멀리즘과 구조주의의 속성 및 그 이론 체계에 대해서 瞥見해 보았다. 1920년대의 러시아 포멀리즘 비평은 언어구조를 바탕으로 한 문학의 내재적 분석이라는 기본 명제를 안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의 뉴크리티시즘이나 구조주의 비평의 기본 원리 속에 그대로 수용되어 발전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구조주의 비평 이론의 보다 옹근 천착을 위해 포멀리즘의 흐름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다. 포멀리즘에서 발원하여 뉴크리티시즘, 구조주의 비평 등 현대비평으로 이어지는 기본 명제는 문학이 언어를 수단으로 삼고 있는 한 영원한 것으로서 기리 발전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

최근 세계의 비평 문단이 이와 같은 명제의 정당성을 인식하면서 현대비평정신의 각성을 모색하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도 새삼 이 방면에 대한 관심이 提高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형식이라는 일반적 개념을 기법이라는 개념으로 끌어올리고 다시 기능의 개념으로 이해한 러시아 형식주의의 결함¹¹⁾등을 우리 나름대로 보완하면서 구조주의가 부수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비역사성, 공허한 보편성, 이중적 사고를 통한 제약, 복수적 중립, 脫事物化 등의 결점 등도 아울러 분석, 검토함으로써 비평의 새로운 地평을 열어 나가야만 하겠다.

10) 러시아의 저명한 포멀리스트 Tomashevsky는 운문을 구성하는 언어란 음성 효과 속에서 조직되어 온 언어이며 음성 효과는 다양한 현상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11) cf. 鄭昌燮 : op. cit., p. 81.